

특별특리소

NH농협 김제시지부 쌀 기탁

NH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홍형갑)는 3일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쌀 225포(10kg)를 김제시에 지정 기탁했다.

NH농협 김제시지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지원과 봉사활동을 통해 활기차고 따뜻한 김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은행으로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전식 김제시장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포트홀 긴급복구 실시

김제시(시장 이진석)는 지난 달 29일부터 2월 6일까지 긴급 보수한 2개조 20명을 투입하여 김제시내 2개조 20명 등 주요 육교와 급구 IC-검상과선교 등 12개 노선에 대하여 포트홀 긴급 복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포트홀은 지난 1월 18일부터 19일과 23일부터 2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내린 기록적인 폭설 (각각 25cm, 30cm)과 한파로 인해 눈이 녹고 어는 과정에서 노면이 수분이 침투하여 포장에 연약화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둔 시기에 폭설과 한파가 동반하여 포트홀이 다량 발생함에 따라 기존 도로 보수반외에 관내 도로정비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포트홀 정비를 서두르는 등 설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편안한 고향 방문이 되도록 운임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시는 시민들이 차량통행 중 포트홀 등 도로파손이 발생된 곳을 발견했을 때는 김제시 건설과(063-540-3844)로 신속한 제보를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누에타운 설 제외 정상개관

누에사육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부안누에타운이 설 당일인 8일을 제외하고 연휴기간인 6·7·9·10일 정상 개관한다.

부안누에타운은 사계절 누에사육하기가 가능한 한온합습실을 갖추고 있어 알, 애벌레, 누에고치, 번데기, 나방 등 누에의 생생한 모습을 직접 관찰해 볼 수 있다.

탐방관에서는 거대한 뽕나무 숲과 정글 탐사형 과학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고 말하는 앵무새 등을 직접 손에 올려볼 수도 있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2016 세계의 아름다운 곤충 꽃무지 전문 기획전시전과 '세계의 희귀 누에나방 표본'을 특별 전시하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곤충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흥미를 제공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 서남권추모공원 설 정상운영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은 3일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정상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설 당일 화장장에 한해 2회 차인 11시부터 3회(11시, 13시, 15시) 운영하고, 봉안당은 참배객 편의를 위해 5일간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추모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상환 근무조를 편성해 정상근무하고 교통과 주차안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봉안당 내의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해 제례음식과 쓰레기는 퇴거자가 출구와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생화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올해 65억4천여만원을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펼친다.

정읍시 맞춤형 교육 지원 나서

65억 4천여만원 투입... 학교급식·지역외딴인재육성 사업에 투자

지역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정읍시가 올해 65억4천여만원을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펼친다.

시는 "이를 재원으로 탄탄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방침으로, 꿈과 재능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정읍의 21세기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양질의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31억1천만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아동용 위한 급식 및 유급식비 지원에 14억3천만원,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과학탐구 및 예체

재육성사업을 추진한다.

5억1천만원을 들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심화학습과 학생컨설팅, 대학별 구술면접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의 실력 있는 학생들이 우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학교는 교과목 심화학습은 물론 목표설정과 동기부여, 자기분석, 멘토와의 만남, 학습전략 탐구, 진로 및 비전 특강 효과적 필기법, 창의력과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캠프 등에 주안점을 두고 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얼마쯤 온종일 돌봄교실 등 5개 사업에 8억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초·중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순회배치 지원사업에 2억6천만원,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과학탐구 및 예체

능 분야 인재양성 사업에 2억여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말과 교감의 교감을 통한 정서적 안정 도모와 말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학생승마사업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혁신교육특구사업에 1억1천만원을 지원해 지자체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성기시장은 "이러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으로 교육병동도시를 조성하고, 우리 지역 우수 인재들은 물론 어려운 형편에서 면학에 정진하는 학생들이 21세기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

김제시는 1월초부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과 전기·전화·TV 수신료, TV 수신료 등의 각종 요금 감면 지원 현황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6,438명에 대해 전기·전화·TV 수신료, 쓰레기 봉투 감면 혜택으로 연간 17억 4,000만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제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요금 감면제도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년 4월부터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홍보하였고, 사제관리시 신청이 누락된 대상자에게는 신청을 안내하여 왔다.

요금감면 사항을 보면 시청각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TV 수신료가 면제된다.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달에 8천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모두 이동통

신 가입비가 면제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만 2500원까지 요금이 감면된다. 단, 알뜰폰(MVNO)은 요금감면에서 제외된다.

요금감면기관인 한전, 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 사업자)의 정보시스템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주민센터에서 감면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분증과 요금청구 고지서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일괄 신청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쌀 변동직불금 135억 지급

설 명절 전에 50%

부안군이 2015년산 쌀 변동직불금 135억 원을 지급한다.

부안군은 지난해 수확기 평균쌀값(2015년 10월~2016년 1월까지 4개월 쌀값을 평균한 가격)이 15만659원(80kg)으로 정부 목표가격(18만8000원)보다 낮게 형성돼 80kg 기준 1만5867원(ha당 99만9621원)씩 4938개 농가에 총 135억 원의 변동직불금을 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동직불금은 2회로 분할해 지급되며 농업인의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인 5일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9월까지 지급한다.

농업경영과 조용환 과장은 "변동직불금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소득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쌀·밭 직불제 사업에도 농가가 빠짐없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6년 쌀 직불금은 오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이나 주소지 농 관원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해야 하고 올해도 작년과 같이 농업경영 체(변경) 등록과 통합 신청방식으로 추진한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는 산불 예방과 관련, 산불감시 카메라 5대와 산불 진화차 4대 등 초동 진화태세를 구축했다

정읍시 봄철 산불예방 인력 발대

감시인력·진화대원·임업인 250명 참석

정읍시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민간의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불예방 감시인력 및 진화대원, 임업인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봄철 산불예방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서 김성기시장은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총력을 쏟아 산불로 소중한 산림자원과 인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강조하고 관계자들의 빈틈없는 예방활동을 당부했다.

시는 산불 예방과 관련, 산불감시 카메라 5대와 산불 진화차 4대, 등짐펌프 200점 등 진화장비 24종 1천785점에 대한 점검을 마치는 등 초동 진화태세를 구축했다.

특히 봄철 산불예방인력을 활용해 산림 100m 이내 소각행위 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산불 취약지역 인화물질 제거 작업도 병행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이날소나무 재선충병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에서 시는 정읍시 조경수 재배농가의 주요 소득인원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방제와 꼼꼼한 예찰활동이 필요한 만큼 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생시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가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인근 지역인 임실과 순창, 군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에서도 정읍은 재선충병 발생 예방에 성공, 명품 소나무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이어 갈콤함을 한방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탐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특별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750ml 2ea, 잔 1ea, 오르너/12%

GIFT SET 3: 750ml 1ea/12%

GIFT SET 4: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375ml 5ea/13%

GIFT SET 6: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르너

GIFT SET 7: 375ml 2ea/13%

TEL : 063-544-9990  
www.gangsanwine.com